



RAONATTI 5TH
CAMBODIA
6월 보고서



< 목 차 >

1. 6월 활동 알림

2. 아띠의 눈으로 캄보디아 다시 보기

3. 캄보디아의 좋은 친구들

4. 6월 사진전

6월 활동 알리미

<6월 1일 어린이날>

6월의 첫 휴일이자 우리나라에서도 휴일인 6월 1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수/금요일에 수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프놈피라움 유치원과 짱크니어 유치원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휴일이었기에 아디들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어린이날을 진정으로 즐기고 누릴 수 없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줄 수 있음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루였다.



<6월 2일 중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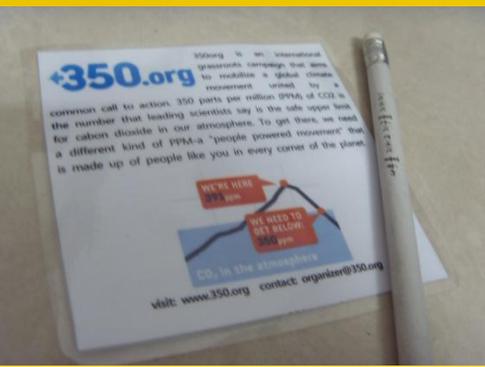
6월 2일 YMCA에서 파견한 중간평가 심사단이 센터에 도착 하였다.

이번 심사단 분들은 우선 송진호 실장님과 수원YMCA 총장님과 KB 국민은행의 사회공헌 팀장님께서 함께 센터에 방문해 주셨다.

활동 보고와 동영상이 그리고 개인에 세이를 며칠전부터 내내 준비하였고, 평가단 분들께서도 있는 그대로 긴장하지 말고 보여주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시간에 대한 점검을 받는 것이기에 보고를 하는 첫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심사단분들께서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셨기에 우리도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 칭찬과 함께 수정 보완하고 새롭게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기에 파견기간의 중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6월 5일 350ppm 캠페인 :환경을 살리는 350분>
 환경의 날인 6월 5일, 라온아띠 5기 단원들이 각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로 계획한 350ppm 캠페인을 했다. 우리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350ppm에 대해 알려주기로 결정했다. 국내훈련을 받았던 수원YMCA에서 재생연필을 협찬받고, 350ppm과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담긴 종이를 연필에 말아 만나는 사람마다 직접 나누어 주고 함께 인증샷을 찍었다. 햇볕이 쨍쨍한 더운 날씨와 외면하는 시선들이 때론 우릴 지치게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고 멋있다고 응원해주어서 기분 좋게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의 작은 도시 시엠립에서 시작한 소박한 움직임이 그들을 통해 멀리멀리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쌀라아띠 - 오카리나반 개설

활동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쌀라아띠 반에도 변화가 생겼다. 음악 수업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기 위해 여세린 단원은 직접 한국에서 오카리나를 협찬받아 오카리나 수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생소한 악기라 모집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현재 아이들과 함께 '도레이파솔라시도' 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 비자트리پ

6월 말, 비자 연장기간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시엠립에서 14시간 가량 버스를 탄 끝에 도착한 호치민에서 라온 아띠 베트남팀 친구들도 만나 반가운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팀 친구들이 사는 마을도 둘러보고, 호치민 시내와 나짱 바다도 구경하면서 모처럼 여유있게 보낸 날들이었다. 그래도 돌아올 때쯤엔 다들 얼른 시엠립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림다고 난리였다는.^^

아띠의 눈으로 캄보디아 다시 보기

1. 예방접종

캄보디아에 간다고 하면 가기 전부터 말라리아, 파상풍, A형간염, 장티푸스 등 수많은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휩싸인다. 물론 조심하면 좋지만 최소한의 예방접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아띠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다. 캄보디아도 사람 사는 곳이지 않은가. 우리도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2 좋은 것이 있으면 다 훔쳐갈 것이다.

캄보디아가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모두가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은 아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전거나 모토를 가게 앞에 세울 때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데, 서로의 것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행동이다. 여느 나라에서 처럼 자신의 물건을 잘 간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캄보디아에서도 똑같다.

3. 더운 나라라서 다들 반팔 반바지만 입고 다닐 것이다.

아니다. 대부분 긴팔 긴바지를 입는다. 슬리퍼 신을 때 양말도 자주 신는데, 이는 경험해본 결과 피부가 햇빛과 뜨거운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보다는 긴팔 긴바지로 가렸을 때 햇빛 때문에 따갑지 않기 때문이다. 아띠들도 활동할 때에는 주로 긴바지를 입는다.

4. 캄보디아에서는 인터넷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캄보디아 거의 모든 곳에서는 인터넷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수도인 프놈펜이나 관광지인 시엠립에서는 카페 안이나 숙소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무선 wifi 당연히 된다.

5. 가끔 추운 날도 있다. 밖에 나가면 10초 만에 땀이 줄줄 흐르는 뜨거운 캄보디아이지만 아주 가끔 닭살이 돋을 정도로 추운 날도 있다. 아띠들도 캄보디아에 온 첫 달에는 이불을 두 개씩 덮고 잔 적이 있다. 수면양말이 절로 생각이 났었다.

캄보디아의 좋은 친구들



나의 가장 친한 꼬마친구, 피읍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동시에 놀림과 구박도 많이 받는 아이. 자기도 여덟살 꼬맹이면서 밥 먹을 때 동생부터 챙기는 아이. 유치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아이.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처음 사귀친 친구이자, 지금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피읍'이다.

하루는 지쳐 쉬고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하늘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아주 크고 동그란 모양의 예쁜 무지개가 떠 있어서 순간 힘든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도 했다. 연필이며 공책이며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내게 아낌없이 건네는 착한 아이 피읍은 요즘 나와 매일매일 색칠공부에 열심이다^^!

내 친구 소타.이(15)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가르쳐주면 뭐든지 받아들이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아침에 만날 때마다 "소타.이" 라고 부르면 항상 "뵤" 이라고 크게 대답해주기에 기운이 없어 힘들 때 이 친구만 만나면 기운이 펄펄 납니다. 체구는 작지만 마음이 큰 이 친구는 이곳 다일 센터에서 태권도도 배우고 쌀라아디에서 리코더 수업도 받고 저에게 한글 수업도 받고 있습니다. 프놈피라웅 중학교에서 한글 수업을 받을 때에도 결석이나 지각을 한번도 하지 않는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센터 사람들 모두가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한글을 까먹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지만 항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서 가끔 저와 비교해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친구가 이루려고 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나마 진심으로 응원하려 합니다. 소타.이 화.이팅!



시크의 절정, 그러나 숨겨진 애교가 매력적인 메이!!

“메이!!” 메이가 유치원을 다녀온 뒤 밥퍼를 어슬렁거릴 때면 나는 어김없이 외치며 메이에게 달려간다. 그러면 메이도 달려간다... 나를 피해... 메이는 밥퍼의 주방장 슬라이ムの 셋째 아들로 초절정 시크를 자랑하는 5살 꼬마이다. 메이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뻐라 하니 콧대가 말도 못하게 높다. 내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나를 피해 도망가기 바빴던 메이, 하지만 끊임없이 메이에게 말을 걸고 먹을 것도 주고 안아도 주고 크롬 스톨란 네악 이라 말해주었다. 그러니 이제는 나한테 따라오라 손짓하고 가끔씩 환하게 웃어도 주고, 요즘은 애교 섞인 표정도 보여준다.. 밥퍼가 바쁠 때면 와서 손가락 설거지를 도와주는 자상함도 있다!! 이제는 날 보고 방긋 웃어주고 장난도 치고 손도 잡고 업히기도 하는 메이.. 어찌보면 좋나... 갈수록 메이가 너무 좋다!! 난 내일도 우렁차게 메이를 부르며 쫓아갈거다!!





쌀라아디 한글반 똑똑녀 피읍

정석! 크놈 정 리은 피어사 꼬레! 아일러으 벵리은 크놈 반 데?(정석!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지금 나 배울 수 있어요?)

피읍에게 이말을 들었을때 나는 조금 난감하였다. 이미 인 원 초과인 쌀라아디 한국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내가 피읍을 배우게 한 건 분명 멋진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 누구보다도 열심히 숙제와 연습을 해오고 가장 출석 이 좋으며 수업내용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가 바로 피읍이기 때문이다. 엄마아빠가 돈을 벌로 먼곳에 떠나계셔서 친구 집에서 함께 살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에게 웃음으로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을 데려오겠다는 피읍! 피읍이 있어 나는 오늘도 한국어를 멈출 수 없다. 피읍! 크놈 쓰롤란 네악!

프놈 크라운 7학년의 매너

남 티에라

티에라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교실 뒷정리까지 하는 멋진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가정형편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지 못하게 되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는 사탕수수 음료를 팔고 밤에는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영어책으로 혼자 공부하는 17살 티에라. 내게는 사탕수수가 free라며 갈 때마다 30분~1시간씩 여기하고 노는 내게 매일 와 줄 수 있겠냐고 묻는데, 한 잔에 150원하는 사탕수수가 맛있기도 하지만 티에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번은 5잔을 연거푸 마셨다가 배탈이 난 적도 있다. 그래도 좋다. "티에라! 나는 네가 정말정말 좋은데 어떻게 하지? ^ _ ^"



6월 활동 사진전



재활용 페트병으로 “찰찰찰”
소리가 나는 악기도 만들었구요~



“어때요? 잘 만들었죠? 네??”



오늘따라 목욕하는 솜씨
이 쾌하게 웃네요.
“저 또한 기분이 좋아요!”
-세린-

캄보디아에서 만난 외국인 부부예요.
환경보호를 위해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부부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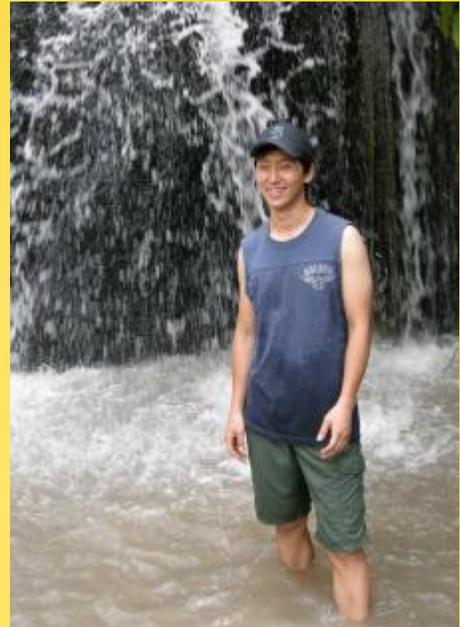




황정경 선교사님
6월 7일부터 9개월간의 사
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보고 싶어요ㅠㅠ”

2개월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김영훈님

“잘 지내고 있어?? ㅋㅋ”



중간평가 때 오셨던
송실장님, 황총장님,
사회공헌팀장님
그리고 우리 원장님과
아띠들

도서관 앞에서 포즈 좀
잡아봤어요

베트남 여행일기



베트남으로 가는 버스 안이다.

13시간을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강행군이지만 출발할 때 모두가 “그 정도쯤이야” 하는 자신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6시간 후..

지쳤다...

몇 시간 만에 모두 늙어 버린 것 같았다.



13시간이 지나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

베트남팀을 만난 우리는 너무나 반가웠다.



메콩델타 투어도 하고 뱀도 만났다.

세린.이는 정말 메두사 같았다.



빈펄랜드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낙하산을 탔다. 웃는 게 진짜로 웃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 솔직히 조금 무서웠다.



보트투어 때 배 안에서 한국사람 대표로 이유정 단원.이

아리랑을 불렀다. 용기 있는 자세, 게다가 노래도 잘 불렀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 떼 떼 봤다. 이유는 다들 모른다..ㅋㅋ





아침부터 쌀국수를 먹었다. 그리고 커피도 마셨다.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다.



구찌 터널에 갔다. 지하 땅굴이 아니라 하나의 미로 같았다.

이 참에 풀 잎으로 위장 좀 했단다.

베트남에 있는 예쁜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가 너무 귀여운가 보다.^^(상우)



우리와 함께해주준
베트남팀
너무 고맙고
만나서 반가웠어.

조만간 다시 만나자!

